

2016년 3월 20일(주일) 야고보서(17) “판단의 함정”(약 4:11-12)

<도입>

선택은 특권입니다.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이 선택의 특권을 활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어 주셨고 이 선택의 연속으로 삶이 이어져 가는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선택하는 삶을 살되 관계 속에서 **비방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방은 헐뜯고, 거스르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은 자기가 법정에 고소해도 여전히 옳다고 여길 정도의 판단을 말합니다. 본문 11, 12 절은 지난 2주간 다룬 ‘그리하면’, 즉, 판단하지 않으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1] 형제를 판단하지 않아야 할 이유

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판단하여 비방하여 상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설교의 마지막에서 다룰 것입니다. 먼저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며, 자신에게 해악이 된다는 측면을 살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비방/판단하는 결과는 하나님 영예를 실추합니다. **11 절**.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신 입법자이고, 판단하시는 사법관이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 의하여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정작 판단하셔야 할 하나님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비방/판단하면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는 일이며, 하나님을 내려가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엡 4:30)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판단에 빠지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별로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비방/판단하는 것은 자신에게 해악입니다. 판단하는 일 자체는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형제 자매에 대해 판단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8: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육체로 판단한다는 말은 피상적으로, 즉, 외모, 소유, 직책 등으로 사람을 대우한다는 뜻입니다. 겉사람대로 판단하고 대우합니다. 속사람을 보고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사람을 비난하고 지적하고 고치려 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자신의 인격 깊은 곳까지 받아주고 사랑하십니다. **롬 8:1**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정죄만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 사람을 받아주고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형제를 비방/판단하는 것은 왜 판단하는 자신에게 해가 됩니까?

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동감과 아픔 속에서 받아주고, 따뜻한 눈으로 통하고, 진심으로 그의 장점을 보기가 결코 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이 결핍되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단이 앞서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삶의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고 실의/분노에 빠질 수 밖에 없고, 삶에 힘이 없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퇴보합니다.

[2]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는 말 중 나쁜 말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써 화목을 깨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안 그래’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12 절**.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면 이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자성의 질문으로 들어야 합니다.

상대를 혼을 내주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서 고쳐 주어야지... 당신이 잘 되려면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인격적 교류를 잠시 포기하고서라도 바른 말과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단 사랑의 노선을 선택하기를 포기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베포 측은 공동체적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 기억하십시오.

[3] 비방과 판단에 지지 맙시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상대에 끼치는 영향은 그야말로 죄의 결과들입니다. 죄란 단절, 소외, 분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환멸과 실망, 위축과 눌림, 혐오와 증오, 분노와 우울, 냉담과 무관심, 보복과 응징, 거절과 의절(나를 비방하는 상대를)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난과 판단을 받는다고 언제까지 이 죄의 결과를 끌어안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비방과 판단 당하는 사람의 영적인 역량과 자질은 예수님의 사랑의 승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덕적이고, 이지적이고, 연륜이 많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비방과 판단의 종결은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스테반 집사에 대한 비방과 판단의 종결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죽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서 하는 것'이라고 오히려 변호해주었으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첫 걸음을 띠어야 하는 단계는 내가 비방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방과 판단을 하지 않으려면 나 대신 비방과 판단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무조건 받아주신 것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내가 남을 비방/판단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큰 영적 도약입니다. 그러나 자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나도 똑 같이 비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권세) 안에서 치욕을 당하면(적어도 묵묵히 인내할 수 있다면) 어떤 더욱 큰 은혜를 입게 됩니까?

벧전 4: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비방하지 않으면) 복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비방과 판단을 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들]

1. 나는 비방과 판단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2. 비방과 판단이 왜 그토록 큰 죄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3.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서 어떤 판단은 허용되며, 어떤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떤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할까요?
4. 비방과 판단 당할 때,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극복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